

#### 4. 서원의 문중화와 난립

이와 아울러 우리가 주목할 것은 조선 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서원(書院)·사우(祠宇)의 건립과 이들 세력의 진출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원과 사우는 향촌사회에서 지배성씨의 형성과 집단화 과정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에게 주목되어 왔다. 숙종대에 급증하기 시작한 서원·사우는 영조대에 일시 통제를 받아 휘철되기도 하지만, 정조대 이후에는 거의 방임되다시피 하여 다산의 지적처럼 한 고을에 20~30개의 서원·사우가 난립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었다.

대체로 16~17세기 초반까지만 하여도 서원의 건립은 국가의 인정이나 향중공론을 바탕으로 하여 도학자(道學者)나 유현(儒賢), 국난(國難) 충절인(忠節人)에 한하여 건립이 허락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건립에 필요한 문중기반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각 가문이 원하는 형태의 서원 건립은 어려웠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이후 특히 숙종대를 분기점으로 당파적인 서원의 건립이 확산되면서 제향인물의 기준이 모호해졌다. 그리고 도학·유현을 제향하던 서원보다는 기절(氣節)이나 행의(行誼)를 실현한 인물들이 대거 제향되는 사우의 건립이 일반화하는 추이 속에서 문중인물의 제향도 더욱 용이해졌다. 한편 이와 동시에 중앙의 벌열세력들은 자신들의 지방기반을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벌열들의 필요와 향촌사회에서 문중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그 정치적 배경으로서 중앙의 세력과 연대를 갈망하던 문중세력의 상호보완적인 연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18세기 중엽 이후 일반화하는 '문중서원(門中書院)'은, 기본적으로 건립의 주체가 '문중세력'이며, 이에 따라 도학유현의 제향(祭享)과 장수강학(藏修講學)의 기능을 지녔던 16~17세기의 서원들과 일단 구분될 수 있다. '문중서원'은 문중이 배출한 문중인물을 제향함으로써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지위와 이해를 보장받고자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조선 후기의 이 같은 서원 건립활동은 향안질서의 변화에 대한 양반사족의 한 대응방식이었으며, 국가의 지방지배방식에서 소외된 양반사족들이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존속하는 방도였다고도 볼 수 있다.

순천지역의 서원·사우 건립상황

서원명	소재지	건립연도(사액)	제향인물
옥천서원(玉川書院)	옥천동	1564(1568)	김굉필(金宏弼)
충렬사(忠烈祠)	조례동	1593	허 일(許 鎰)·허 곤(許 坤)·허 예(許 銳)
정충사(旌忠祠)	저전동	1682(1686)	장 윤(張 潤)
청수서원(淸水書院)	금곡동	1692(1727)	이수광(李睟光)·이응기(李應耆)
겸천사(謙川祠)	주암면	1711	조 유(趙 瑜)·조승문(趙崇文)·조철산(趙哲山)· 김종서(金宗瑞)·박중림(朴仲林)·박팽년(朴彭年)
곡수서원(曲水書院)	조례동	1712	정 소(鄭 沼)·조대성(趙大成)
오천서원(鰲川書院)	주암면	1793	차운혁(車云革)·차원부(車原潁)
옥계서원(玉溪書院)	연향동	1808	정지년(鄭知年)·정승복(鄭承復)·정사준(鄭思竣)· 정사횡(鄭思●)·정 빈(鄭 ●)·정 선(鄭 愼)
용강서원(龍岡書院)	금곡동	1821	양팽손(梁彭孫)·양신용(梁信容)
이천서원(伊川書院)	상사면	1827	박세희(朴世熹)·박증손(朴曾孫)·박대붕(朴大鵬)

순천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전남지역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인 1564년에 옥천서원을 건립하였던 곳이었다. 그 이후 서원의 난립이 최고조에 달했던 숙종대와 영조 초년에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무질서는 보이지 않았다. 즉, 1682년 이 지역 출신인 임란충절신 장윤을 제향하는 정충사가 건립되고 순천부사로 재임했던 이수광을 제향하는 청수서원 등이 1692년 향사우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1711년 사육신과 행적을 같이했던 조유 등 옥천 조씨 일문의 검천사가 건립된 이후 순천지역에는 각 성씨의 서원과 사우가 경쟁적으로 건립되는 양상을 보인다. 각 가문의 입향시조나 충절인물을 제향하는 문중성향의 사우들은 과거와 같은 사족 중심의 향론 수립의 기능보다 대부분 자기 문중의 이해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한 문중화 과정의 추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검천사의 경우 사육신과 동열의 행적이 부각되어 사우 건립을 보기는 하지만, 조송문과 그의 아들 철산이 신원(伸冤)되고 정려(旌闕)가 내려지는 1799년에 이곳에 이들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순천의 저명가문으로 알려지는 양천 허씨도 충렬사를 건립하여 임진왜란 때 김대인·정사준 등과 거의하여 활약한 허일과 그의 아들을 제향하였다. 경주 정씨들은 1808년 옥계서원을 건립, 마침내는 입향조 이후 그들의 선계와 충절인을 합향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상주 박씨들도 임진왜란 때 고경명 등과 의병활동을 하다가 금산전투에서 순절하여 선무원종훈에 책록된 박대봉(1525~1592)과 가계인물을 제향하는 이천서원을 1827년에 건립하였다.

이처럼 서원·사우가 경쟁적으로 가문의 충절인물을 내세우면서 개별 가문의 전유물이 된다는 것은 종래와 같은 향론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남아 있는 각 가문의 권위적이고 경쟁적인 사우 건립은 계속되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한 신흥세력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지적한 것처럼 조선 후기 순천의 사회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보수적인 지배세력들이 강력하게 온존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적 권위는 차츰 도전을 받아 변했으며, 이 같은 변화를 주도하였던 신흥세력의 움직임은 근현대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들 세력들은 많은 한계와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새로운 사회의 조망보다는 기존의 사족지배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종래 사족이 누렸던 특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이기적 노력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들은 봉건적 관권과 결탁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분제적인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려는 자생적이고 계급적인 이해를 견지할 수 없었다.

더욱이 새로운 세력들이 가지는 이러한 한계와 함께 당시 국가권력 또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나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다만 양반지배체제를 보완해가는 범위에서 수용되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노론집권세력의 전제권력 확립을 위한 지방세력의 분열이라는 차원에서 이용되기도 하였다. 결국 이들 세력은 19세기에 이르러 국가권력의 파행적인 운영 속에서 수탈구조의 한 핵심으로 정착하거나, 그 역할을 전위적으로 담당하는 세력이 되었다.

#### 참고자료

정만조, 「17~18세기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2, 1975.

이태진, 「16세기 사림의 역사적 성격」, 태동문화연구』13, 1979.

전형택, 「동국여지승람 전라도 인물조를 통해본 조선초기의 지배세력」, 역사학연구』10, 1981.

- 안병욱, 「조선후기 민은의 일단과 민의 동향」, 한국문화』2, 1981.
- 김준형, 「조선후기 면리제의 성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 김선경, 「조선후기의 조세수취와 면·리운영」,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조원래, 「18세기초 순천부의 지방행정 동태」, 탐도문화연구』1, 1985.
- 안병욱, 「19세기 임술민란에 있어서의 향회와 요호」, 한국사론』14, 1986.
- 고석규, 「조선시기 사회사연구의 방향」,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하)』, 한울, 1987.
- 주강현, 「조선후기 변혁운동과 민중조직」, 역사비평』 가을호, 1988.
- 정만조, 「조선조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 한국사학』10, 1988.
-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19, 1988.
- 고석규, 「19세기 전반 향촌사회구조의 성격」, 회대사학』2, 1989.
- 지승중, 「조선후기 사회와 신분제의 동요」, 한국의 사회와 문화』10, 1989.
- 이해준, 「조선후기 향촌사회질서의 변화와 기층민문제」, 태구사학』37, 1989.
- 이태진, 「17, 18세기 향도조직의 분화와 두레발생」, 천단학보』67, 1989.
- 고석규·한상권, 「18, 19세기 봉건모순의 심화와 ‘민’의 성장」, 역사와 현실』3, 1990.
- 김인걸, 「조선후기 촌락조직의 변모와 1862년 농민항쟁의 조직」, 천단학보』67, 1990.
- 정진영, 「18, 19세기 사족의 촌락지배와 그 해체과정」,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 이해준, 「조선후기 동계·동약과 촌락공동체조직의 성격」,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990.
-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 오영교, 「19세기 사회변동과 오가작통제의 전개과정」, 학림』 12·13, 1991.
- 이해준,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21, 1991.
- 정진영, 「조선후기 동성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21, 1991.
- 정승모,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조직」, 역사민속학』1, 1991.
- 오영교,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의 전환」,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이해준, 「조선후기 촌락구조변화의 배경」, 한국문화』14, 1993.
- 이해준, 「조선후기 사회사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사론』25, 1994.

